

(Robert Vannoy) , 주요 선지자, 강의 23

다니엘 8장 2부

다니엘 8 비전 검토

우리는 다니엘 8장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면, 이 장의 첫 부분에 두 뿔 달린 숫양과 관련된 환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큰 뿔을 가진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뿔에서 나오는 네 가지 주목할만한 뿔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작은 뿔은 그 네 가지 주목할 만한 뿔 중 한 부분에서 심히 커집니다. 그 비전은 1절부터 14절까지이고, 그 환상의 해석은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내려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나는 9절의 진술과 관련하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8절에서 언급되는

“그들” 곧 하늘의 사방에서 온 주목할만한 네 사람이라. 알렉산더 왕국의 네 부분 중 한 부분에서 아주 커지는 작은 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23절과 24절에서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읽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 언급은 다시 22절의 끝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알렉산더의 능력이 아닙니다. 23절, “그들의 나라 말기에 범죄자들이 가득할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얼굴이 엄위하고 어두운 판결을 깨닫는 왕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이 작은 뿔이 있습니다. “얼굴이 엄하고 어두운 왕이 일어나며 그의 권세가 강대하리라” 등으로 묘사된 작은 뿔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분명히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공격했지만 셀레우코스 세력의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파견된 로마 군대에 의해 이집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셀레우코스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림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진노를 터뜨렸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단을 더럽혔는데, 그 행위는 일종의 비밀스럽게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스스로 높여 군대의 대장이라 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의 성소를 헐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11 절 에는 -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조치는 11장 30절 이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중에 11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으로 가서 30절을 보면 “깃딤 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임이니라” 라고 읽게 됩니다. 깃딤 의 배들은 의심할 바 없이 로마군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언약을 거슬러 분개하여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 그는 심지어 돌아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을 깨달을 것이다. 군대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 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또 언약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자를 거짓으로

패괴시키려니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위업을 행하리로다 백성 중에 총명한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탈취를 여러 날 동안 당하리라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에 조금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아첨하여 그들에게 매달릴 것이며 지각 있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넘어져서 그들을 시험하고 깨끗하게 하려 하리라.”

그러므로 여기 한 절에서 방금 언급된 동일한 사건이 11장에서 다시 안티오코스를 언급하면서 더 자세히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3-25절은 이 “사나운 얼굴의 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에 대해 적절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8:9-11 안티오쿠스가 경건한 사람을 밟다 이제 9절부터 11 절까지로 돌아가서 나는 그들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NIV는 약간 다르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 한 뿔에서 심히 커지는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기쁨의 땅을 향하였으니, 곧 즐거운 땅은 이스라엘이니라 . ” --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군대까지 커졌습니다.” 이제 “천국의 군대”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 신자들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은 하늘의 이 군대까지 커져서 그 군대의 얼마를 넘어뜨리느니라. 즉, 경건한 사람들 중 일부가 땅에 던져져

짓밟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종류의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 10절에서 그것은 땅에 던져지고 이 뿔로 짓밟힌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 즉 안티오코스가 쓴 것이다.

그런 다음 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높임을 받아 군대의 대장과 같으니라” 고 했습니다. 이제 “만군의 왕자” 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백성의 통치자는 “만군의 왕” 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mimenu* 입니다 . 내 생각에는 “그에게서 매일의 제사가 폐하여졌느니라” 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티오코스는 매일의 제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곧 하나님에게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졌고 그의 성소 곧 하나님의 성소가 헐렸느니라 그래서 11절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8:12 호른 안티오쿠스가 변영하다 12절에서는 “그에게 군대가 주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여 군대를 그에게 맡기셨다”

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범법으로 인한 매일의 희생 으로 더 잘 번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를 땅에 던지고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의 제사가 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즉, 경건한 백성과 매일의 제사가 이 뿔 곧 안티오쿠스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이 그에게 반역하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즉 이 뿔은 곧 안티오코스입니다. 개인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을 상징하는 뿔이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시면 그 뿔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즉 안티오코스가 “진리가 땅에 던져지니라.”

다니엘 8:13-14 황폐의 가증한 것 13절과 14절에 이르면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 어떤 성도에게 말하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멸망의 가증한 일에 관한 묵시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주리이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일까지 그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느니라 하시더라.”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는 2300일이라는 언급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이 인용한 12절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00일에 대해 논평하기 전에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 인용문의 37페이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문단은 12절에 대한 Walvoord의 논평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검토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 다음 EJ Young의 39페이지로 넘어가면 첫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절 정도입니다.

“본문의 언어는 어렵지만 나는 Keil과 다른 사람들을 따라 ’ 범법으로 말미암아 한 무리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내어졌느니라’ 그리하여” -그리고 여기에 그의 의역이 있습니다 - “ 그리고 군대” -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배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안티오크스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배교하게 될 것임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은 해석 방법일 수 있지만, “범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 , 즉 하나님께 대한 배도가 계속적인 희생과 함께 버림받고, 범법 중에 넘겨질 것입니다.

2300일(?) 그런데 12절과 13절에 가서 2300일에 이르면 영과 함께 여기까지 따라가세요. Young은 귀하가 인용한 39페이지의 다음 단락에서 두 가지 해석을 언급합니다. 어떤 해석으로는 1150일, 즉 2300일의 절반을 뜻하는 것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 뒤에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 해석은 시리아의 에브라임이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히폴리토스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이 계속되는 아침 저녁 희생 제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제사는 1150일 동안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3년

반의 시간과 관련하여 이 입장을 지지하며 그들이 말하는 1150일은 3년 반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50일이 단지 360일로 간주되더라도 정확히 3년 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260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일치는 아마도 이 견해의 가장 유능한 옹호자인 Zulkler에게서 인정됩니다. 그는 1150일이 기간의 의도된 축소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견해입니다. 여기에 설명된 이 상황은 1150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2300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제롬의 헬라어 역본과 대부분의 개신교 주석가들, 그리고 승인된 역본에 나타나 있으며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과 아침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1150일 저녁은 1150일입니다. Keil이 올바르게 주장한 것처럼 히브리 독자는 2300 저녁/아침 기간을 2300 반나절 또는 1150 하루 전체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 당시 저녁과 아침은 하루의 반이 아니라 전체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2300일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 40페이지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2300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호되는 독서라면? 나는 안티오코스의 가증한 기간인 대략 기원전 171년부터 기원전 165년까지를 포함하는 2300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Walvoord의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여백에 이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00주일이 안티오코스의 역사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설명이 시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2300일이라는 용어를 기원전 164년에 안티오코스가 메디아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던 중 사망했다고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성소를 정화하고 유대인 송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날짜로부터 뒤로 2300일을 계산하면 시작 시간은 기원전 171년으로 고정됩니다. 그해에 합법적인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가 살해되고 유사 계열의 제사장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코스가 죽을 때까지 2300일이 경과하는 기간에 적절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실제 모독은 기원전 167년 12월 25일에야 성전에서 제사가 강제로 중단되고 성전에 그리스 제단이 세워질 때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실제로 더럽혀진 기간은 약 3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티오코스는 에피파네스라는 칭호가 붙은 주화를 발행했는데, 이는 그가 수염이 없는 왕관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성한 영예를 나타냈다고 주장 했습니다 .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가장 좋은 결론은 다니엘서의 2300일이 기원전 171년부터 164년에 안티오코스가 사망하는 기간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론들은 그들이 해결한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비판적 허구적 접근 따라서 8장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할 때까지의 역사 흐름과 그의 통치 기간에 겪었던 박해에 대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니엘서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식이 옳다면, 그 저자는 안티오코스 시대에 살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 사람이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안티오코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이야기 중 1-6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 작가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적 타당성을 지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이라기보다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인간의 책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경우입니다. 비판적인 사례가 사실이 아니라면 - 그리고 확실히 당신이 성경을 보는 방식은 당신이 비판적인 견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안티오코스 시대까지의 역사 흐름에 대한 신의 영감을 받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안티오코스 개인의 부상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것은 확실한 예측 예언이다. 그것은 다니엘에게서 나온 것처럼 위장한 일종의 사기꾼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이 묘사하는 바로 그것들을 관찰하고 있던 누군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나운 얼굴의 왕은 누구인가? 안티오코스 아니면 적그리스도 아니면 둘 다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다루지 않았지만 약간만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사나운 얼굴의 왕”입니까? 이것은 안티오코스에 대한 언급입니까, 아니면 참조입니까 ? 적그리스도 에게 ? 아니면 다른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중 참조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여기에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23절에서 25절의 특정 문구에 대해 그것이 실제로 안티오코스에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이 안티오코스과 적절하게 연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당신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이 종종 논의되었습니다.

Walvoord의 *Daniel Commentary* 38페이지 상단을 보면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네 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38장 상단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해석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발견되지만 네 가지 주요 견해가 나타납니다. (1) 다니엘 8장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역사적 견해; (2) 미래적 관점, 그것이 전적으로 미래적이라는 생각.” 즉, (1.), 역사적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안티오쿠스이고, 성취되었으며, 그것은 모두 과거이고, 다니엘 시대의 미래이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과거입니다. (2) 미래적 관점은 그것이 전적으로 미래적이라는 생각이다. 이 중 어느 것도 안티오코스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다니엘 8장은 의도적으로 안티오코스과 양자 모두에 대한 예언적 언급이라는 예언의 이중 성취 원칙에 근거한 견해입니다. 이제 성취되었으며, 세상 끝날까지이며 재림 전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마지막 세계 통치자이다. 그리고 넷째, 이 구절이 예언이라는 견해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으나(즉 안티오코스에서) 의도적으로는 전형적인 것이다[즉, 예표; 또는 예표] 시대 마지막에 비슷한 사건과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 견해는 역사적 견해, 미래적 견해, 이중 성취 및 전형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Walvoord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 첫 번째 관점과 관련된 다음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순전히 역사적인 견해의 주된 어려움은 안티오코스를 언급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역사적 견해의 주된 어려움은 ‘마지막 때’라는 표현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 내가 17절 끝에서 “마지막 때에 환상이 있으리라” 고 말했고, 19절 끝에서 “정해진 때에 진노의 마지막 끝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 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이리라.” 그는 안티오코스만을 언급하는 표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티오코스 시대 이후 이방인 시대의 종말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다니엘서의

다른 참고 문헌들은 그로 하여금 순전히 역사적 관점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함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관점, 즉 완전한 미래 관점은 그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 말은, 그리스 왕국과 그 왕국의 셀레우코스 분열, 안티오코스의 부상과의 맥락에서 너무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눈에 띄는 견해가 아닙니다.

이중 이행 관점: Walvoord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 관점, 특히 세 번째 관점은 확실히 상당수의 옹호자들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이중 이행 관점이다. 다음 단락은 이에 대한 Walvoord의 의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히 역사적 성취, 다른 한편 순전히 미래적 성취라는 문제를 고려하여 많은 주석가들은 이중 성취 가능성, 즉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과거는 그 구절을 완전히 성취할 미래의 사건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변형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전체 구절이 이중 성취로 간주되고 다른 일부는 다니엘 8:1-14을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비전 자체이며, “다니엘 8:15-17은 이중 성취로 간주됩니다.”

15-17절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Walvoord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자의 견해는 *Scofield Reference Bible*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 1917년판과 1967년판은 모두 8장이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에서 성취되었지만 예언적으로는 17절부터 시작하여 재림과 함께 시대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래된 스코필드 성경(1917년판)에서 몇 가지 진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9절에는 작은 뿔에 대해 말하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는 “여기 있는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성취된 예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래에서는 24절과 25절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주석에는 “24절과 25절은 안티오코스를 넘어서며 분명히 다니엘[7장]의 작은 뿔을 언급하는 것 같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일곱의 작은 뿔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과 짐승이 모두 보이지만 짐승이 우선적으로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여기서는 안티오코스과 짐승이 모두 있지만 짐승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10-14절에서 늑은 스코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안티오쿠스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더 강렬하고 최종적인 의미에서 안티오쿠스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대한 무서운 신성 모독과 기타 여러 참고 문헌을 설명합니다. “다니엘 8장에는 두 작은 뿔의 행동이 섞여 있습니다.” 두 뿔의 작용이 혼합됩니다. 이 구절들은 이 진술들이 이중 참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과

적그리스도에 관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두 끝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9절의 작은 뿔이 나온 부분 중 하나인 알렉산더의 세 번째 제국 즉 헬라 제국의 끝이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끝입니다. 둘째, 예언적으로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일어날 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Scofield 노트에는 이중 이행에 대한 매우 명확한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Scofield의 내용은 약간 완화되었지만 제가 방금 읽은 메모는 실제로 동일합니다. New Scofield는 그 문구가 17절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제3 제국의 끝이고, 예언적으로는 이방인 시대의 끝입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성경은 세 번째 관점인 이중 성취를 보여줍니다.

Walvoord의 다음 진술에 주목하십시오. “많은 전천년 작가들이 이 해석을 따릅니다. 이러한 많은 점을 주의 깊게 조사하면 이 모든 요소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그는 23절부터 25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인은 명백하며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라는 표현 과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라는 표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물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는 시리아 왕국 후기에 일어났습니다. 다만, 운문 에서 ‘끝’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 “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반드시 종말론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티오코스에서 완전히 성취된 예언으로 해석될 때 이 구절의 주요 문제는 '세상의 끝'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다니엘서 7장의 더 큰 그림을 고려할 때 이 내용은 안티오코스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두 가지 모두가 고려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39페이지 상단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운 구절은 안티오코스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구절을 넘어서 종종 마지막 때의 세계 통치자로 알려진 미래의 인물을 예표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통치자는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가 이룬 일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합니다. 이 환상의 해석은 예언의 이중 성취를 보여주는 예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대안이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훨씬 더 매력적이며 Walvoord는 이 대안보다 이중 성취를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안티오코스를 모형으로 사용하면 해석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궁극적인 왕을 묘사하는 데 있어 모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손대지 아니하고 꺾이리라.”

이것은 이중성취의 종류와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질문입니다. 즉, 여기에 예언이 있고 그 예언에는 구체적인 내용, 세부 사항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성취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함께 다니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서 성취된다. 이제 Walvoord가 말하고 있는 것과 Scofield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에 대해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중 성취, 다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기: Vannoy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견해입니다. 나에게서는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예, 그것은 안티오코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는 안티오코스가 적그리스도의 한 유형 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선호되는 것 같아요. Walvoord는 그러한 견해를 언급하지만 이중 성취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 견해에 대해 말할 때, 39페이지 상단에 있는 문단 끝에서 그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불행한 일입니다)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거나 안티오코스를 모형으로 사용하여” -

관찰합니다 - “ 해석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런 다음 모형을 넘어서는 추가 사실을 드러냅니다.” 나는 그것이 유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언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궁극적인 왕을 묘사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다시 이중 성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의 전형적인 견해와 그가 여기서 그것을 정식화한 방식조차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사실이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관점을 조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그가 스스로 높여 군대의 우두머리로 여기고 매일의 제사를 그에게 폐하였으니” 라는 말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하였으니 그것이 성취되었느니라. 다른 성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안티오코스는 그의 많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미래에 비슷한 일을 할 것이지만 더 강렬할 또 다른 개인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형과 성취를 통해 구속사의 진행을 낮은 평야에서 높은 평지로 옮기게 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아마도 그는 비슷하지만 더 나쁜 일을 할 것입니다. 동일한 기본 원칙 , 즉 진실이 더욱 완벽하게 구체화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개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안티오코스는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티타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Vos는 그 원리에 따라 작업하며 성막을 예시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성막,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곳과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높은 성취는 하나님 이 그의 백성과 함께 완전하고 온전한 의미로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성취를 발견하고, 교회에서도 성취를 발견합니다. 개별 신자 안에는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그 원칙이 실현되는 일종의 반형의 진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중 의미나 다중 의미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성경, 특정 개인, 사람, 특정 장소, 특정 사건, 특정 제도,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은 진리를 상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리를 상징함으로써 나중에 동일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전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안티오코스와 같은 구약의 일부 인물들의 모형론적 측면을 볼 때 , 모형화하기 위해 성경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일하게 합법적인 유형은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식별되는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나는 일부 사람들이 유형론의 남용과 유형 찾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석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나는 Vos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상징을 유형론의 관문으로 사용하고 동일한 진리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상징화되는 진리가 무엇이든, 그 동일한 진리가 구속 역사의 나중 시점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 상징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같은 진리를 지킨다면 예표론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나는 그것이 남용과 우화적인 종류의 유형학 사용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보호 조치가 있더라도 동일한 진실을 유지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는 진리는 나중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도 동일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17절이 구약 시대의 끝으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모형론이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안티오코스가 역사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시대에 훨씬 더 강렬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악의 의인화를 구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이것은 구약 시대 이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최악의 박해 중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다른 구절에서는 비슷한 일을 할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서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다니엘서는 복잡한 책이다.

“마지막 때”

나는 그 문구에 대해 “마지막 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에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문구는 11장에도 나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 두 왕의 마음에는 악을 행할 것이니라. 그들이 한 식탁에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끝은 정해진 때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은 또한 분명히 종말론적이지 않습니다. 35절에도 “슬기 있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넘어져 그들을 시험하여 정결케 하고 마지막 때까지 희게 하리라. 아직 정해진 때가 있느니라.” 또 “마지막 때” 입니다. 안티오코스의 활동과 관련된 맥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11:27 과 35 의 내용은 종말론적이지 않습니다. 2.

다니엘서 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 개요에서 두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대한 기본적 접근의 문제이다. 더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해석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언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각 해석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 범주를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접근법을 언급하겠습니다.

1. 비판적 접근법 첫 번째는 비판적 접근법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시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기원전 165년경 안티오코스 시대에 이 책이 쓰여진 관점입니다. 물론 이 견해에는 책의 진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가정이 수반됩니다. 역사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쓴 사람이 자신의 역사에 대해 너무 명확하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의 좋은 예는 구약 도서관에 있는 Norman Porteous의 *Daniel* 이라는 책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종의 대표적인 논평을 보고 싶다면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40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Porteous의 접근 방식의 본질을 알려주는 한두 단락이 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 환상이 바빌로니아/페르시아 시대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까지 포함하는 그리스 시대에 대한 점점 더 정확한 지식이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그 통치 기간의 사건들은 이 책의 연대가 164년 직전임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예언의 유일한 요소는 안티오코스 의 예상되는 죽음과 그의 왕국 설립에 대한 하나님의 예상되는 개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다른 모든 것은 다니엘에게

해석된 상징으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이 이교 왕에게 해석한 역사입니다. 전체 책” –이것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 “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몇 년 동안에 속하며, 167년에서 164년, 아마도 169년에서 164년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재헌납하고 사망하기 전에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안티오코스의. 이 책이 포로 시대에 기록될 수 없었다는 것은 저자가 바벨론/초기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가 실제로 부정확한 점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특성으로 인해 2세기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존재는 이 책의 구성에 대한 초기 연대를 뒷받침하지 않는 문학적 언급, 정경에서의 위치, 신학 및 천사론의 특성에 의해 알렉산더 정복 이후의 시대를 가리킨다. ” 이것이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책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작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안티오코스의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점, 비판적 관점입니다.

비. 정통 견해 – 무천년설 – 그리스도의 초림

두 번째 보기. 나는 이것을 정통적 견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 부분에서 이 책의 강조점, 즉 주된 강조점을 찾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와 다음 견해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천년왕국 종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초림에 있습니다.

이제 이 위치의 예는 EB Pusey입니다. 1800년대 후반 2b2 Pusey , *Daniel the Prophet* 항목이 있는 참고문헌 6페이지를 보십시오 . Pusey는 이러한 비판적 견해가 처음 개발되는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반대했고, 그 책의 진위 여부를 잘 주장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책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메시지는 재림 때에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임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예를 들어, 2장에서 여러분이 금 머리와 네 부분으로 된 형상을 갖고 있고, 그 돌이 그 형상을 친 손 없이 잘려졌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요, 세상의 시작입니다. 전쟁으로 세계 제국을 멸망시키는 복음의 확산

이제 이 견해를 옹호하는 가장 최근의 사람은 EJ Young일 것입니다. 그의 책은 2b2, *다니엘 주석의 예언* 아래에도 있습니다 . Young은 또한 저자,

진정성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질문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책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이 썼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환상과 예언에 대한 해석 문제에 관해서는, 영은 네 번째 제국을 로마제국으로 본다. 비판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가 아니지만 그는 그것이 로마제국의 재건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본래의 로마제국이므로, 손대지 아니하고 자른 돌이 형상의 발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용문의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살펴보세요. 영은 자신의 논평에서 자신이 반대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40페이지 하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책은 목사와 훈련받은 성경 연구생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일반 성경 독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을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통된 해석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1페이지 맨 위, “한편으로는 다니엘의 연대와 저자에 대한 소위 비판적인 입장이 대답되어야 하며 참된 견해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 그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는 그 일을 꽤 잘 해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오늘날 매우 널리 퍼져 있는 또 다른 해석은 비록 이 책의 진실성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예언들 중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다고 추정되는 7년 기간을 언급함으로써 극도로 부당한 방식으로 예언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해입니다. 이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하는 글을 쓰는 것은 주저할 뿐입니다. 본 저자는 자신의 논평을 연구하는 이 학파의 옹호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논의한 정신을 이해하고 적어도 여기에 제시된 해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 7년 기간을 크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극도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5페이지에 나오는 다음 단락에서는 그가 더 구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두 번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해석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네 번째 군주제는 역사적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파국적인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이 세워질 부활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견해에 따르면 이방인 세계 강국의 멸망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에 일어난다 .” 그래서 이 주석은 그가 자신의 선호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의 해석에 접근하는 두 가지, 즉 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하나는 비판적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여기서 세대주의적 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다.

씨. 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 관점 역시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이 책의 초점이 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 아래서 박해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마지막 때에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관점은 다른 두 관점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초림이다. 세 번째 견해에서는 안티오쿠스의 때와 마지막 때를 더 강조합니다. 제목이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통적인 견해이고, 이 세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 안티오쿠스와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다른 두 책을 합친 것보다 약간 다른 해석을 사용하여 쓰여진 책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아직 성취되지

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될지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히 훨씬 더 큼니다. 이 세 번째 범주에는 안티오크스를 거의 완전히 제거하여 강조점을 거의 전적으로 마지막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Walvoord와 같은 누군가는 안티오크스가 여기에 있지만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스트레스와 일종의 합쳐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강조가 실제로 책의 내용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평가들이 안티오크스를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어떤 근본 학자들은 비평가들이 안티오크스를 그곳에서 발견한다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안티오크스에 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8장과 같은 장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11장의 많은 부분이 분명히 안티오크스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장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적그리스도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책을 실제로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나중에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은 시간 간격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나단 조셉스(Nathan Josephs)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Carly Geiman의 초기 편집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